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와 주류산업의 발전방향



박시룡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 目 次 ■

- 1. 세계경제 전망과 트렌드
 - 가. 성장 및 교역
 - 나. 주요 트렌드
- 2. 국내 경제전망과 불안요인
 - 가. 경기전망
 - 나. 구조변화 및 불안요인
- 3. 주류산업 발전 방향
 - 가. 주류산업의 당면 과제
 - 나. 주류산업 발전 방향 모색

1. 세계경제 전망과 트렌드

가. 성장과 교역

올해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에서부터 세계 동시불황에 빠질 것이라는 극단적인 비관론이 혼재하고 있을 정도로 높은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는 형국이다. 다만 아시아지역의 동시다발적인 외환위기가 점차 수습국면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경기의 연착륙 가능성이 커지면서 비관론이 수그러들고 낙관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해 세계경제의 성장세는 97년의 3.2%에 크게 못미치는 2.0%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경기안정을 유지한 반면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지역과 러시아등 시장경제이행국이 외환위기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 출근 외환위기 가능성에 시달리고 있는 중남미지역의 성장을 둔화도 세계경제의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99년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98년의 성장둔화국면이 지속되겠지만 미국의 금리인하와 일본의 경기부양책등에 힘입어 98년의 2.0%보다는 약간 높은 2.4%정도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세계경제성장을 주도해 온 미국과 EU의 성장세는 약간 둔

화될 전망이다. 금리인하등을 통한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급격한 경기침체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외환위기등으로 마이너스성장을 보였던 아시아지역이 체로성장 또는 플러스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도 적극적인 경기부양책과 함께 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 세계경제 전망을 국별로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세계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경제의 경우 한때 90년대이후의 장기호황에 따른 거품이 붕괴되면서 공황론이 대두되기도 했으나 미통화당국의 이자율인하등 적극적인 경제정책으로 2.0%대의 성장율을 지속하면서 연착륙에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연착륙에 성공하더라도 과열된 주식시장, 기업경상이익 감소에 따른 설비투자 감소, 무역적자 확대, 신용경색 등 불안요인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U경제는 98년의 2.7%성장에서 금년에는 2.4%수준으로 성장세가 약간 둔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러화 출범에 따른 시장확대효과등 긍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성장세가 둔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아시아 및 러시아의 경제난이 장기화되고 세계적인 금융불안등의 여파로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90년대 들어 버블의 붕괴와 함께 장기 경기 침체에 빠져있는 일본경제의 경우 지난 97년 0.7%의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한데 이어 98년에는 사정이 더 악화되어 2.7%의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년에도 대체적인 재정지출확대를 통한 긴급경기부양책과 금융개혁등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경기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성장율은 -0.2%정도에 그쳐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중국경제는 적극적인 내수진작에도 불구하고 98년과 비슷한 7%

대의 성장에 머물러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동시다발적인 외환 위기로 최악의 국면에 빠져있는 동남아의 경우 실물부문의 회생등 본격적인 경제회생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겠지만 금년부터는 98년 침체에 대한 반등으로 경기추락이 진정되고 후반기부터는 구조조정 효과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 세계경제가 성장률면에서는 지난해보다 다소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나 교역여건은 여전히 어두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과 EU의 경기후퇴로 수입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아시아지역의 본격적인 경제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교역의 침체는 계속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세계 무역증가율은 물량기준으로는 98년의 5.5%에서 99년에는 5.8%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세계적인 디플레이션 현상으로 금액기준으로는 감소추세를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나. 주요 트렌드

올해 세계경제는 저성장 기조속에 글로벌 자본주의에 부응하는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구조변화 및 추세가 복합적으로 전개되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혼돈 내지 혼란스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국지적 문제가 전세계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나비효과(butterfly effect)가 두드러지면서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미국 주식시장의 폭락, 헛지펀드 파산등이 한때 세계 공황을 촉발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금년도 세계경제의 변화를 주도하거나 특징짓게 될 주요 트렌드로는 다음 몇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자금경색 및 중남미 동유럽등지의 외

환위기 가능성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이 계속될 것이란 점이다. 국제금융시장은 기본적으로 유러화 출범과 아시아지역 경제여건의 개선등 탈(脫)미국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98년의 경우 미국증시의 호황과 고금리등으로 국제금융자본이 일본·유럽 아시아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등 세계 각지로부터 미국으로 집중되는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올해에는 경제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로부터 자금유입은 계속되겠지만 일본 유럽 아시아지역에 대해서는 미국으로부터 자금이 유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할머니의 경우 국제사회 및 국가별로 규제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규모가 축소되고 투기적 성격도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헷징펀드를 비롯한 단기자본의 투기적 이동이 다소 진정됨에도 불구하고 유가를 비롯한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중남미 동유럽 중동지역에서 연쇄적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둘째, 유러화의 출범으로 기축통화로서 달러 독점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 국제통화질서가 구축될 것이란 점이다. 유럽연합 15개국 가운데 11개국이 참여하는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유럽연합의 공식 통화가 출범함에 따라 각 경제통화 및 외환보유등 여러면에서 달러화의 위상 및 비중이 상당히 떨어지고 유러화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분간 유러화의 변동폭은 클 것으로 보이나 달러화에 대해 1.17-1.20달러 범위내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달러화에 대해 소폭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일본도 엔화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달러-유러-엔화간의 3극 체제에서 환율안정을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주요기업들과 산업계는 유로화시대에 걸맞는 범유럽 경영체제 구

축을 위해 국경을 초월한 대규모 합병이나 인수를 적극 추진하게 될 것이다.

셋째,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교역환경의 악화로 보호무역주의가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의 경우 장기호황을 누리는 과정에서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을 배경으로 슈퍼 301조를 부활하는등 안으로는 반덤핑제소등 보호주의 무드가 높아지고 밖으로는 시장개방을 위한 통상압력을 크게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새로운 통상이슈에 대한 협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2월 15일 OECD 뇌물방지협정이 발효되어 기업의 대외활동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2000년에 출범하게 될 뉴라운드 문제를 둘러싸고 다자간 협상의 범위, 방식, 일정등과 관련한 국제적 논의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 라운드의 의제는 기존의 무역 투자등 실물부문 뿐 아니라 금융 정보등 경제전반과 환경부문까지 포함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넷째로는 인터넷과 전자상거래가 폭발적으로 확산될 것이란 점이다. 인터넷은 인류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는 미디어로 사용자수는 지난 98년 1억2천만명을 넘어선데 이어 99년에는 1억6천만명, 그리고 2002년에는 2억8천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도 고속성장을 지속하면서 기업의 상거래방식과 산업의 변화를 가속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97년 100억달러에 불과했으나 98년에는 300억달러, 99년에는 700억달러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섯번째 트렌드로는 세계시장 제패를 위한 거대합병(mega-merger)이 속출할 것이란 점을 들 수 있다. 시티코프와 트래블러스, 다임러 벤츠와 크라이슬러, 엑슨과 모빌, 보다폰과 에어티치등의 합병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앞으로

도 업종을 막론하고 주도기업간 거대합병추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합병이 합병을 유발하는 '합병 도미노'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의 산업 또는 업종의 판도는 소수의 메이저가 지배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국내경제 전망과 불안요인

가. 경기전망

외환위기 2년째인 올해 우리경제는 지난해의 혹독한 불황에서 점차 벗어나는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작년 한해동안 우리경제는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맞아 사실상 공황상태에 빠진 한 해였다. IMF의 강도높은 긴축처방에다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의 회오리가 몰아치면서 민간소비와 기업투자가 사실상 실종되다시피 했고, 그 결과 지난해 우리경제는 -5.6%라는 사상 최악의 성장율을 기록했다. 다만 환율급등을 배경으로 수출부문에서 어느정도 활력이 유지됨으로써 외환보유고를 확충하고 환율 및 금리를 비롯한 거시지표를 안정시킨 점이 큰 성과였다. 짧은 기간안에 경제안정 및 회복의 기반을 다진 것이다.

실제로 우리경제는 지난해 말부터 적어도 지표상으로 경기회복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어 금년들어 대외신인도가 일제히 투자적격수준으로 회복됨으로써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이 크게 밝아지고 있다. 이에따라 시간이 갈수록 마이너스 성장 또는 제2환란 우려등과 같은 비관론은 줄어들고 금년 1/4분기 아니면 늦어도 2/4분기를 고비로 우리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로 돌아설것이란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당초 비관론이 지배적이었던 외국인의 시각도 비슷하게 바뀌고 있다.

올해 우리경제의 성장전망은 기관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2-3%정도의 성장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부 민간연구기관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내다보고 있으나 정부와 IMF 및 국책연구소들을 중심으로 금년 상반기를 전후해 완만한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같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거시지표가 안정되면서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펼수 있는 여건이 어느정도 마련된데다 수출도 그런대로 호조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구조조정의 여파로 늘어나는 실업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사회간접자본(SOC)투자를 비롯한 사업예산의 70%를 금년 상반기중에 집중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다 지난해 말 이후 이자율 하락으로 주식시장이 활기를 되찾으면서 얼어붙었던 민간소비가 소폭이나마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구조조정을 마무리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설비투자도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이같은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여전히 부진한데다 임금등 소요비용 안정, 해외 원자재가격의 안정등으로 물가상승 압박은 크지 않아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율은 3-4%선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물가안정이 이자율 하락은 물론 정부의 경기부양책을 가능케 하는 배경이 되고 있는 셈이다. 다만 하반기에 가서는 통화증가, 금리하락, 상반기 재정지출확대등이 내수를 부추켜 시차를 두고 물가상승 압력이 가시화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대외거래부문의 경우 수출은 지난해와 비슷한 1,320억달러 수준을 유지할 것이나 수입은 내수회복으로 지난해의 대폭적인 감소세에서 벗어나 1,100억달러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

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통관기준으로 200-250달러 정도의 흑자가 예상되고 경상수지는 지난해의 400억달러에서 200억달러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올해 수출입은 환율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외환수급사정등에 비추어 달러에 대한 원화환율은 대체로 달러당 1,200원대에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엔화 약세가 가능성이 큰데다 중국 위안화의 절하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 수출은 일본 엔화의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올들어 엔화가 약세를 지속함에 따라 수출전망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주고 있다. 우리 수출의 약 절반정도가 국제시장에서 일본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는 우리수출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엔화와의 환율이 10:1수준은 유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반적으로 올해 경제사정이 지난해보다는 나아질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그러나 최악의 경제난을 경험한 지난해와 비교한 개선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시말해 통상적인 의미의 경기호전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성급한

면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회복이 수출업종을 중심으로 일부 업종에 국한되어 피부에 와 닿지 않을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그나마 외환위기 및 구조조정과정에서 배제된 여러가지 불안요인의 항배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구조변화 및 불안 요인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우리경제는 외환위기 및 IMF관리체제를 계기로 촉발된 구조조정을 비롯한 여러가지 제도적 변화가 지속되면서 질적 양적인 구조변화가 계속될 전망이다. 다시말해 경기는 점차 회복 국면을 나타내겠지만 기업 정부 및 공기업등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의 회오리가 여전히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량 실업사태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과 함께 외환위기 극복의 발판이 돼 온 노사정 합의체제가 적지않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우리경제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는 몇가지 구조적인 변화 및 불안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구조조정이 강도높게 추진되는 가

1999년 국내 경제 전망

단위 : %

	KDI	삼 성	현 대	L G	메릴린치
국내총생산(GDP)	2.2	2.2	0.3	1.9	2.0
민 간 투 자	2.5	2.8	0.5	-1.8	-3.0
설 비 투 자	5.9	3.9	0.6	-7.4	-
건 설 투 자	-5.0	7.1	3.3	5.6	-
수출입차(억달러)	305	178	169	270	-
소 비 자 물 가	1.6	5.2	2.1	3.5	4.0
회사채수익율(3년)	-	11.0	11.0	13.0	11.5
원/달러환율(연평균)	-	1,300	1,400	1,300	1,358
실 업 율	-	8.7	8.0	8.7	-

운데 상당한 후유증과 부작용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빅딜을 둘러싼 갈등과 후유증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특히 반도체 및 자동차빅딜의 경우 워낙 덩치가 크고 복잡한 사안인데다 정치적 요인에 의한 지역정서까지 끼어들면서 경제적 손실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부채비율 감축, 계열사 정리, 소유지배구조의 개혁과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과 진통을 겪게 될 것이 확실시 된다. 우선 5대그룹의 경우를 보면 올해말까지 부채비율을 200%이하로 낮추도록 되어 있는데, 결국 이를 실현하려면 동시다발적인 자산매각과 외자유치에 나서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여러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자산매각에 나설 경우 자산가격의 하락등 불리한 여건을 감수해야 한다. 이제 시작단계에 있는 6-64대 기업집단에 대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역시 시행착오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직 국내 은행들이 워크아웃을 원만하게 추진할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워크아웃의 전제조건인 은행과 기업간의 신뢰기반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에 의한 경영의 투명성 압박이 가중되면서 선단식 경영에 의한 과감한 전략적 투자는 점차 사라지고 개별기업의 수익성과 배분에 더 큰 비중이 두어질 것이다. 결국 급속한 구조조정의 추진과 경영관행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우리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보약이 되겠지만 기업의 경쟁력 및 성장잠재력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노동불안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올들어 노동계의 탈퇴음직임으로 노사정위원회가 존재 기로에 서 있는 데서도 알수 있듯이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중심축이 돼 온 노사정합의정신이 상당정도 퇴색되는 가운데 노동

계의 불만과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경제사정이 나아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난 2월중 실업율이 2백만명에 육박하는등 실업대란이 가시화되자 근로자들만 고통을 전담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노동계내에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합의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노사정위원회가 제역활을 못하고 있다는게 노동계의 불만이다. 또 선거철을 앞두고 노동계의 선명성 경쟁과 같은 내부요인도 노사관계 불안에 한몫을 하고 있다. 정부와 재계는 어떻게든 노사정위원회를 깨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만약 이같은 노동불안이 원만히 수습되지 못하고 임금 및 단체협상등과 맞물려 과격투쟁으로 이어지고 노사관계의 악화로 이어질 경우 겨우 회생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외국투자자들이 노동불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대외신인도는 물론 외국인투자유치에 차질이 올수도 있다.

세째, 비록 노동불안등의 걸림돌이 있기는 하지만 외국기업들의 국내진출이 크게 활기를 띠는 가운데 적대적 인수합병(M&A)의 위협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미 주식시장의 경우 외국인투자자들이 장세를 주도할 만큼 외국인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포철, 한전, 삼성전자등 우량기업은 물론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지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주총회등을 통해 외국인투자자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M&A관련 제도적 장벽이 사라짐에 따라 화학, 제약등의 경우 외국기업들이 국내 상위권 업체들을 인수하여 시장장악에 나서고 있는가 하면 국내기업의 정보가 노출됨에 따라 적대적 M&A의 위협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상장기업의 경우 내부지분율이 30%정도에 불과하고 주가가 낮아 방어력이 취약한 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 외국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적대적 M&A를 통해 국내산업 및 시장을 장악 할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 환경, 제약등 고부가산업이나 금융 유통 소비재등 국내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을 중심으로 집중 공략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이와 함께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형 M&A나 국내 소액주주운동과 맞물려 주주권 행사를 통해 지배구조의 개혁과 경영권참여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경영권분쟁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적대적 M&A등에 대처해본 경험이 없는 국내기업들이 경영권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큰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다. 이는 결국 내수시장에 기반을 두고 전통적 경영방식에 머물러 있는 상당수 국내기업들의 생존환경이 그만큼 악화해진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관개정, IR활동, 현금흐름경영과 주가관리등을 통해 적대적 M&A 에 대한 방어능력을 높혀나가야 한다.

3. 주류산업 발전방향

가. 주류산업의 당면 과제

올해 주류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지금까지 살펴본 국내의 경제여건에서 파생되는 거시적인 여건변화와 아울러 주류산업이 지니는 산업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여전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류업계는 시장개방과 규제개혁에 따른 경쟁격화속에서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올해 주류산업이 겪게 될 시장여건 및 제도적 변화 몇가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류에 대한 수요부진이 계속될 전망이다. 경기의 완만한 회복기류에 따라 소주를 비롯한 일부 저가 주류를 중심으로 소비가 다

소 되살아날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전반적으로 수요부진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회복이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확산되지 못하는 가운데 구조조정의 여파로 실업위험이 높아지고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추세가 계속되면서 얼어붙은 소비심리가 풀리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주류의 경우 IMF 한파를 겪으면서 나타나고 있는 소비합리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출대상의 하나라는 점에서 주류소비의 증대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주류중에서도 소주를 비롯한 일부 대중적 인기를 끌고 있는 일부 저가 상품 및 고소득층이 선호하는 고급 위스키를 중심으로 수입대체 효과에 의한 소비증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로는 규제개혁에 따른 주류산업의 빅뱅이다. 주류산업은 지금까지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주류산업이 갖는 사회적 특성과 세수관리라는 차원에서 제조 및 유통 전반에 걸쳐 많은 규제와 엄격한 통제를 받아왔다. 이처럼 과도한 규제와 통제는 많은 경우 기존 업계에 대한 보호장치로 기능함으로써 주류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게 된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신상품개발이 제대로 안되는 가운데 국제화시대에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소비자의 기호를 맞추지 못해 외국상품의 경쟁에서 뒤져 주요 주류 메이커가 부실에 빠지는등 국내 주류산업의 위기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주류산업의 제조 및 유통 전반에 걸쳐 모두 20가지의 규제를 철폐기로 확정함으로써 빅뱅의 막이 올랐다. 올해부터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규제개혁 내용을 보면 주정신규제조 허용, 주정생산량 제도폐지 및 원료사용제한, 주류생산 시설기준 완화, 리큐르원액 제조 및 사용규제 대폭 완화등 주류제조 관

런 규제가 대폭 풀리게 됨으로서 주류산업의 기반 및 질서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세째로는 구조조정에 대한 압력이 계속될 것이란 점이다. 국내 주류업계는 외환위기이전부터 구조조정에 들어가 OB등 업체별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국내 수요부진, 외국 업체와 경쟁심화등으로 인해 계속 강도 높은 구조조정 압박을 받게 될 것이 확실시 된다. 특히 주류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개혁이 가시화되면서 그동안의 구조조정이 주로 기존 업체 단위의 재무구조개선에 역점이 두어졌다면 앞으로는 경쟁력확보를 위한 사업구조조정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네째는 외국 주류와의 경쟁이 더욱 격화될 것이란 점이다. 비록 지난해 외환위기로 주류수입이 크게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술소비국가로 세계 각국의 주류메이커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대표적인 술시장의 하나이다. 유럽이 우리나라 소주에 대한 주세를 문제삼아 WTO에서 승소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외환위기라는 특수한 요인에 의해 외국 주류메이커의 국내시장 진출이 잠시 주춤하고 있다고 해서 국제경쟁의 위협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판이다.

나. 주류산업 발전 방향모색

앞에서 살펴본대로 주류업계를 둘러싼 여건은 당분간 수요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시장 개방 및 규제개혁에 따른 경쟁격화로 요약될 수 있다. 이같은 환경속에서 국내 주류산업이 발전해 나가기 위한 방향으로서는 다음 몇가지를 꼽을수 있다.

첫째, 전면적인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최근

주류산업을 둘러싼 규제개혁과 시장개방등은 이제 주류산업도 국제수준의 전방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생존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에도 나름대로 치열한 경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여러가지 규제와 통제를 감안하면 국내업체들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경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시장 개방의 확대에 따라 국내업체로서의 이점은 점차 줄어들고 국제적인 주류메이커들과도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하고 여기서 이겨야 생존을 보장받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원가절감, 경영혁신등을 통한 가격경쟁력 향상은 물론 기술과 브랜드개발, 새로운 마케팅전략 그리고 소비자만족도 향상등을 통해 비가격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

둘째로는 국제화의 추진이다. 주류산업도 이제 신티볼이등을 내세우며 국내시장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세계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세계적인 주류메이커들에 비해 품질이나 브랜드등에서 전반적으로 열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하기에 따라서는 세계시장에 진출해 성공을 거둘수 있는 품목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 소주와 막걸리등 일부 전통주들의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은 국내 주류산업의 국제화가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라 할 수 있다. 일본도 위스키 및 맥주등에서 중주국은 아니지만 국제적인 브랜드를 갖게 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외국 주류업체의 투자유치, 전략적 제휴, 매수합병(M&A)등을 통해 외국의 자본 기술 및 경영 노하우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세째로는 구조조정의 추진이다. 주류업계는 외환위기이전부터 구조조정에 들어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금까지는 주로 부채비율축소를 위한 재무구조개선에 역점이 두어졌다. 그러나 새로운 환경에 부응

하면서 국내 주류산업이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주류별로 전문화 및 대형화하는 방향에서 사업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과 같은 무한경쟁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틈새시장을 노리는 일부 차별화제품을 제외하고는 규모의 경제에 의한 원가우위 및 시장점유율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전략이기 때문이다.

네째로는 주류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한 기업 또는 산업이미지관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주류업계는 주류가 건강 및 대중문화에 끼치는 영향면에서 다른 어떤 업종보다도 기업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시민기업으로서의 의무가 크다. 가령 미성년자의 보

호, 건전한 음주문화 형성등 공익적인 사업에 투자를 늘려가는 것도 시민기업으로서 이미지를 구축하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국내 주류업계가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자구노력 못지않게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도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주류상품이 갖는 특성과 세수관리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구시대적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다. 프랑스의 포도주, 스코틀랜드의 위스키등에서 보는 것처럼 주류산업도 생산 고용 수출을 통해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대표적인 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Never be haughty to the humble, Never be humble to the haughty

겸손한 이에게 거만하거나, 거만한 자에게 겸손하지 마라.

- Davis -